

제2회 이균영 백일장 대회 개최

광양읍 출생의 소설가이자 역사학자인 이균영 작가의 문학과 역사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후학들에게 인문학적 소양 습득과 문학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I 백일장 개요

○ 일 시 : 2024. 5. 16.(목) 11:00~17:00

- 09:00~11:00 : 참가자 접수 등록 및 주제발표, 원고지 배부 등
- 11:00~17:00 : 백일장 대회 및 작품 제출(시간 내 자율제출)

○ 장 소 : 이균영 문학동산(광양시 우산웰빙테마공원 내)

- 주소: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154번지

○ 참가자격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참가부문 : 산문(주제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발표)

- 산문 1편 /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

○ 시상인원 및 시상금 : 21명 / 총 20,000천원(세부내역 별도)

○ 주최/주관 : (사)한국문인협회 광양지부(지부장: 박지선)

○ 후원 : 광양시, 광양교육지원청, (주)광양기업대표,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민신문

II

접수 및 심사 개요

□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24. 5. 16.(목) 09:00~11:00
- 접수방법 : 대회 당일 현장 접수

□ 심사개요

- 심사기준

평가 기준(100점)	평가 방법
• 독창성(30점) • 주제와 어울림(20점) • 글의 완성도(40점) • 글의 형식(10점)	• 평가 기준에 따라 추천된 심사위원의 개인별 평가 점수 합산한 결과, 표절과 중복 제출 등을 검색 후 순위 결정.

- 심사 및 시상

- 수상자는 심사자의 점수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결정함.
- 동점자가 있으면 학년이 낮은 학생을 우선함.

동학년에서 동점자가 생기면 생년월일이 낮은 학생을 우선함.

- 심사결과 및 작품 정도에 따라 일부 훈격이 제외될 수 있음.
- 시상일자 : 시상은 별도 계획에 의해 추후 알림

- 심사자 : (사)한국문인협회 광양지부에서 별도 선정

III

시상금 개요

○ 총 21명 / 20,000천원

(단위 : 천원)

분야	대상	등급	인원	상금	비고
산문	초등학생 (8~9명)	대상	1명	2,000	
		우수상	2명	각 1,000	
		장려상	5~6명	각 500	
	중학생 (6~7명)	대상	1명	3,000	
		우수상	2명	각 1,000	
		장려상	3~4명	각 500	
	고등학생 (6~7명)	대상	1명	3,000	
		우수상	2명	각 1,000	
		장려상	3~4명	각 500	

※ 대회 참가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인원 변동 가능

IV

결과발표

○ 발표일시 : 2024. 6월 중순경(추후 공지)

○ 발표방법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광양시청 홈페이지 / (사)한국문인협회 광양지부 홈페이지

※ 대상작은 광양시 발행 선샤인 책자 「광양문학 30집」에 실음

○ 백일장 관련 문의처 : (사)한국문인협회 광양지부

또는 광양시청 문화예술과(☎061-797-1992)

V

참가자 준수사항

- (필수)개인준비물 : 학생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선택

개인 필기구, 돗자리 등

※ 원고지는 대회 주관처에서 배부한 것에 한함

- 대회 참가자 한 명당 1작품 제출 가능함.
- 입상자의 판권·저작권은 주관측에 귀속되며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 등록 : 대회 당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이후 실격)
- 작품 제출기한 : 대회 당일 오후 5시까지(이후 실격)

※ 대회 시작 후 작품은 제출기한까지 자유롭게 제출 가능함.

단, 이미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추가 원고지 배부기한 : 2024. 5. 16.(목) 오후 4시 30분까지

※ 추가 원고지 수령장소 : 처음 원고지 배부처(1회에 한하여 가능)

- 학생의 휴대폰은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학교별로 정해진 장소에 보관 예정
(표절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협조 바람)
- 백일장 당일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이미 발표된 작품을 모방하여 제출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시상 후에라도 발견되면 입상을 취소함.
- 주관기관 안전관리요원의 통제를 철저히 따라야 하며 통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참가단체에 책임을 귀속함.

VI

기타자료

- 별첨 1, 2, 3 : 이균영 작가 관련 자료 등

【첨부 3】

소설가 이균영 연구

김세광(광양문인협회 회원)

1. 이균영의 생애

이균영은 1951년 12월 30일 전남 광양군 광양읍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1964년 광양 중학교에 입학하자 광양농고의 정채봉을 만나 문예부에 들어갔고 월간 학원지의 기자로 활동했다. 당시 광양에는 강호무, 김승옥, 주동후 등 문학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그룹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어울리며 문학의 꿈을 키웠다. 강호무와 김승옥은 목포의 최하림, 진도의 김현 등과 '산문시대' 동인이 되어 기존 문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선배 주동후의 주선으로 제일극장에서 정채봉, 이균영 2인 시화전을 열어 군민의 관심을 끌었다. 이균영은 원래 법관이 꿈이었다. 이는 당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행방불명이 된 사촌형과 국회의원이었던 외조부의 영향이 컸는데 정채봉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꿈은 작가로 바뀌었다. 그는 평소 문학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했다.

1967년 서울 경북고에 입학했지만 2학년 때 신장 결석증으로 입원하여 학교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대학입시에 계속 실패하였다. 그 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로 방황하며 투병 생활을 했다. 이 때가 집안의 몰락을 눈앞에 둔 시기여서 그의 정신은 극도로 불안했다. 한곳에 머물러있지 못하고 동해와 남해 바닷가를 전전하며 사람들과 괴로움이 없는 먼 곳으로 밀항을 꿈꾸기도 했고 항해사가 되고 싶어 했다. 그의 곁에는 할머니의 위로와 다독거림이 근심과 슬픔을 씻어주었고 지리했던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었다.

1976년 군대를 마치고 한양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고 1학년 때인 197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바람과 도시」가 당선되었으며, 1984년에는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제8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어두운 기억의 저편」은 분단 문제를

평범한 한 회사원의 무의식과 연결한 수작으로 평가받으며 당시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다. 이 작품은 구성력과 참신한 문체, 그리고 이야기의 긴장감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2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6년 동덕여대 교수가 되었다. 그해부터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편집위원으로 있었는데 주로 한국의 독립운동 연구를 하였다.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신간회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1993년 13년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신간회연구』를 펴냈다. 10여 년에 걸쳐 소설 창작활동을 중단하면서 발표한 『신간회 연구』는 일제강점기 사회연구에서 좌·우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해 신간회의 실체를 밝힌 최초의 연구서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연구로 단재 학술상을 수상했다.

그는 문단과 역사학계의 주는 최고의 상을 받음으로써 문단에서는 촉망받는 작가로, 사학계에서는 열정적인 역사학자로 평가받았다. 그를 가운데에 두고 문단과 사학계는 서로 그들의 식구라며 그를 감싸 안기도 했다. 그는 결국 '역사와 문학의 미학적 만남'을 추구한 독특한 작품세계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역사연구를 계속 하면서도 1995년에 그의 첫 장편소설 『노자와 장자의 나라』를 펴냈다. 그는 이후로 계속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으며 평소에도 10권 분량의 대하소설을 쓰겠다고 지인들에게 그의 포부를 말하곤 했다. 고향에서 빨치산 사건 등 백운산 근·현대사를 조명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끝내고 서울에 도착하던 1996년 11월 21일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가 꺼안고 있던 가방 속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쓴 소설 원고가 들어있었는데 그 원고가 바로 유작인 『나뭇잎들은 그리운 불빛을 만든다』는 책에 삽입된 『빙곡』이었다. A4 용지 16장에 깨알같은 글씨로 쓴 육필원고였는데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1천 2백장의 분량이었다. 이 소설은 지식인의 일생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의 역사를 격동기의 시대상과 그 속의 인간군상을 그렸는데 이 작품은 1997년 봄 「세계문학」에 발표되었다.

그는 세상에 총 28편의 단편과 5편의 중편 4권의 장편, 동화10편, 역사연구서 2편을 남겼다.

2. 이균영 작가 이력

- * 1951년 12월 30 일 광양 우산리 출생(소설가, 역사가, 대학교수)
- * 광양동초, 광양중학교, 경북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사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회 활동
- * 1977년 단편소설<바람과 도시>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
- * 1982년 광양군지 편찬추진위원회 책임상임위원 활동
- * 1984년 <어두운 기억의 저편> 제8회 이상문학상 수상
- *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편집위원
- * 1986년-1996년 동덕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 1994년 <신간회 연구>제8회 단재학술상 수상
- * 1996년 11월 21일 새벽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45세)

3. 이균영 작품 출판 연보

- 1977 * 바람과 도시 :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 1978 * 터(중편), 살꽃이 다리, 풍화작용, 북망의 그늘
- 1979 * 저 언덕
- 1980 * 보리, 어두운 거리의 침묵, 불붙는 난간(중편), 밝이전
- 1981 * 변신, 사라진 나라(중편), 역부근, 류머티즘, 흑색의 죽음, 연사, 고도, 망명일지
- 1984 * 멀리 있는 빛 동동, 어두운 기억의 저편 (중편), 제 8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 1991 * 한말애국계몽운동(역사연구서)

1993 * 신간회 연구(박사학위논문, 단재학술상 수상)

1995 * 노자와 장자의 나라 : 이상문학상 수상 후 발표한 첫 작품(장편)

1997 * 자유의 먼 길(중편), 빙곡, 나뭇잎들은 그리운 불빛을 만든다(장편) : 유고작

2001 * 떠도는 것들의 영원 : 유고작(장편)

이균영은 총 단편 28 중편 5 장편 4 동화 10편을 남겼음.

4. 이균영 소설의 주제들

* 성장기 고향에 관한 이야기

터, 풍화작용, 보리, 어두운 거리의 침묵, 흑색의 죽음, 불붙는 난간,
살아있는 바다,

* 도시 이야기

바람과 도시, 살쾂이 다리

* 가정사에 관련된 이야기

불붙는 난간, 멀리 있는 빛, 어두운 거리의 침묵, 보리, 빙곡, 저너머

* 여순사건 전후의 정치적 격변상류머티즘, 빙곡

* 개인의 삶을 통한 역사적인 사실

어두운 기억의 저편, 빙곡, 떠도는 것들의 영원

5. 이균영의 작품에 나타나는 시적 감수성과 독특한 문체들

"엄마, 우리 이곳을 떠나요."

"어디로 말이나?"

".....나도 잘 알 수 없지만.....머언 곳이에요.....겨울이 없는 곳이면 좋겠어요."

겨울 내내 기침이 그치지 않았다. (‘동동’)

모래사장 위에 남겨진 물새의 발자국 같은, 시간이란 아마 그런 것일거야.....

나는 갈매기 발자국이 바닷바람에 보이지 않게 지워져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

(‘풍화작용’)

고향을 찾는 일은 지난 시간의 화석들을 깨뜨리는 일이다.

현존은 순간이며 삶은 순간의 화석들을 쌓아 간직한다.

꽃무늬도 있고 귀면 무늬도 壽자 무늬도 있는 화석들에

모두가, 모든 것이 담긴다.

(‘노자와 장자의 나라’)

그러한 우리의 삶이란 강과 같은 것이다

처음 산 기슭 사이를 좁게 흐르며 산을 깎아내리고 폭포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넓어지고 독이 보이지 않게 되며 물의 흐름은 고요하고 침착해 진다.

마침내 산을 깎아내리지 않고 독을 무너뜨리지 않고

바다와 만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유의 존재를 잃는다.

(‘풍화작용’)

"차가 비알재 마루에 오르자 멀리 바다가 보였다. 갯가에 닿아 있는 간척지의 푸른 들판 끝에 바다는 부영게 떠 있었다. 창을 열자 따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때문에 창을 통하여 보던 화면과 같은 풍경에 움직임이 생겨났다. 갑자기 빠앙 하는 경적이 울리며 8.5톤 타이탄 트럭 한 대가 추월을 시작했다. (...)

임비의 집집마다엔 감나무가 있었다. 감나무 아랜 으레 우물, 물을 퍼올릴 때면 물에서 감나무가 보였다. 물을 길는 건 머리 땀은 처녀들. 감나무와 우물과 처녀가 임비 의 세 가지 특색이라고 하였다."(불붙는 난간)

저잣거리는 악다구니 소리와 싸움구덕이었다. 종기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내보이는 사 람치고 노름판 같은 저잣거리에서 속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늘 정답고 낮익은 이 장터가 싫어질 때도 있었다. 그런 날 종기는 유당 공원에 갔다. 그곳에 서 그는 곧 잘 이석구 의원을 보았다.

사수들이 겹겹이 줄을 서 있었다. 사수들이 살을 놓을 때마다 '퐁' '퐁' '퐁' 하는 맑은 소리가 공원의 수목들 사이로 날아다녔다. 사수들이 서 있는 뒤쪽에 유림정이 있었다. (불붙는 난간)

작은 어선이 드나드는 한적한 어촌도 없으며, 함께 산책을 하며 조개껍질을 주울 모 래사장도, 미역을 따올릴 기쁨도, 게를 쫓을 밝은 장난질도 없었다.(불붙는 난간)

“형제는 하얗게 꽃이 핀 메밀밭을 지나 푸른 하지감자와 하얗노랑보랏빛이 핀 장다리밭을 헤치며 들로 나갔다. 바람이 불면 익은 보리가 금빛 물결을 이루었다 (보리)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들로 나갔다.

아버지는 그날따라 묵묵히 말이 없었다.

들에는 파란 보리싹이 돋아있었다.

”이 논이 보리는 우리 손으로 갈았는데 이제 우리 손으로 거둘 수가 없다.“

아버지는 논두렁에서 갑자기 논으로 뛰어들더니 서릿발이 선 곳을 다독다독 밟았다.

차마 보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표를 주듯 아버지는,

”보리는 밟힐수록 뿌리에 힘이 생긴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보리를 밟았다.

”객지에 가면 고생이야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보리처럼 살아야한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찾아라.

다시 찾아라. 다시 찾아라" (보리)

【첨부 4】

아, 이균영님

정은주(광양문인협회 회원)

할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단재 신채호 상을 받고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내세울 게 변변찮았던 소도시 광양의 자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늙은 부모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새 스물여섯 번의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그 가을의 비보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쇠 종이 바로 귓전에서 울듯 멍하고 먹먹하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소설에도 쓰지 못할 황망한 사고였습니다.

역사와 문학이라는, 씨줄과 날줄 속에 팽팽하게 자리했던

그는 어디로 가 버렸을까요

시대의 아픔을 품어 역사를 쓰고, 생의 외로움을 풀어 소설을 쓰던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백운산 협동농장이라는 모티브로, 대한민국 근현대를 아우르는

대하소설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주먹만 한 별이 달린 백운산 하늘과 골 깊은 백운산 자락은

그에게 커다란 글밭이었습니다.

유당공원과 빙고등과 동천과 남해바다는
영감(靈感)의 공간이자 생생한 배경이었습니다.

젊은 그에게 지워진 광양의 기대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계와 문단의 주목을 동시에 받는, 새벽하늘 별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대와 꿈을 두고 그는 홀연히 떠났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나요, 하늘이 시샘이라도 하였나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가 아쉽습니다.

그는 갔지만, 큰 꿈을 다 펴보지도 못하고 갔지만
그는 이미 큰 나무였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가 자란 뒷동산에 우리는 문학비를 세웁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한 알의 씨앗이 숲이 되기를!

이 작은 뒷동산에서 저 끝없는 우주가 시작되듯,
그를 닮은 후배들이
시대를 관통하고 존재를 꿰뚫는 참 문학인이 되기를 발원하며
여기 문학비를 세웁니다

그러니
임이시여,
이균영 님이시여,
부디 영면하소서!

【첨부 5】

우울

민 점 기(광양문인협회 회원)

난 요즘 우울하다 한 없이 맑고 곱고 힘찬 사람이
가을바람 소슬하던 날 희뜩이는 마른번개 속으로
훌쩍 날아가 버려서
떠나기 며칠 전 우린, 느랭이골에서
붉은 장미주와 오미자주를 마시며
인생살이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짭은맛을
단번에 알아채고 곱씹었는데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만의 앞날을 점치고
한말 의병과 빨치산 활동
백운산농장 개척사를 얘기하며
곰 같은 농원 주인과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막내 아이에게 감탄과 부러움을 보내었는데
참 우울하다
아마도 저 쪽에서
그이만큼 맑고 곱고 힘찬 사람이
꼭 한 사람 필요하여 데려간 것이 분명하지만
그토록 자랑삼던 광양이야기는 어떡하실려나
이균영 선배님
이팝꽃 피는 봄날이면 나래 활짝 펼친 파랑새 되어
백운산 상봉으로 등허리 억불봉으로
우산공원 섬진나루 광양만 바닷길로
훨훨 날아오세요
못 다한 광양자랑 못다 이룬 꿈
붉은 입술에 지그시 깨물고서 날아오세요